

풍산초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실시

2015년 04월 29일(수) 16:04 [순창신문] 경로복사



© 순창신문

풍산초등학교(교장 서정만)는 지난 23일 목요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기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여수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여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람하고 아프리카 펭귄 생태 설명회를 비롯하여 대형 수조에서 펼쳐진 아쿠아리스트들과 함께 하는 바다 동물들의 식사시간을 관람하며 바다사자 및 펭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초대형 메인수조에서 펼쳐지는 인어들의 아쿠아 판타지 쇼를 감상했다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한 체험활동과 바다쇼를 보고 신기해하였으며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고학년 학생들은 여수 아쿠아리움을 돌아본 뒤 광양제철소를 들러 우리나라 최대 제철소인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여 철 생산과정을 직접 관람하였다. 광양제철소의 홍보 센터에서 풍산초등학교 학생들은 간단한 영상물을 관람하고 본격적인 광양제철소 견학을 시작했다. 광양제철소 안은 들어서자마자 구내 도로가 공장 밖 시내 도로보다 더 넓었고 두꺼운 슬래브를 싣고 나르는 거대한 운송장비들, 항구의 거대한 선박들을 보며 학생들은 감탄에 감탄을 연발했다. 제2열연공장 내부를 관람하며 커다란 막대 모양의 붉게 달구어진 슬래브 덩어리가 길고 긴 롤러 위로 이어지는 연속공정을 거치면서 얇은 철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학생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광경이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거대한 규모에 철 생산 과정이 신기하기도 했고 포스코만의 기술이라는 설명에 공연히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을 만끽하기도 하였다.

학교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학생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자신도 제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처럼 국가에 공헌할 일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